

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빌2:14-18

나이 60이 되도록 세상이 무서운 곳인 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좋은 부모,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 다녔다.

효순이 미선이 사태, 광우병 사태, 세월호 사건, 탄핵...

이러는 가운데 최근에는 코로나 10, 동성애의 창궐, LGBT, 트랜스젠더, 에이즈의 확산, 낙태 활성화 말 그대로 하루하루 정신이 없다.

성경의 예언, 특히 예수님의 예언, 내가 오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마24:37). 롯의 때와 같다(눅 17:26-29). 불법과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 노아 8명, 롯과 그의 두 딸만 구원받음

알면서도 견디기가 힘들다. 나와 내 아내의 미래도 걱정이지만 내 아이들 손자 손녀들

모든 기독교인들, 그들의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

인터넷과 핸드폰 등 IT 기술의 등장, 정말 이런 세상을 가져오려고 했는지 의의한 생각이 든다.

지난 주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여 주는 두 가지 사례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발표되었다.

1월 3일 미국 하원은 제117차 회기 시작하며 첫 개회 기도를 하였다.

(*) 엠마누엘 클리버 민주당 하원의원이 개회 기도를 마치며 ‘아멘’(Amen)이 아닌 ‘아맨과 아우먼’(A man and a Woman, 남자와 여자)이라고 말하고, 또 인도의 신 등 여러 신들을 거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는 이제 ‘유일신, 브라만(인도신), 그리고 많은 다른 이름과 신앙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와 여자(A man and a Woman)”라고 말한 것이다.

그가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서술에 맞게 이를 재정의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아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서, 한 사람의 성별이나 성정체성과 전혀 상관없으며 ‘그렇게 될 것이다 (또는 되길 바란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그리치 공화당 전 하원의장도 자신의 SNS에 “아맨과 아우먼. 하원 민주당의 기도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사실상 모든 정상적인 성 용어를 폐지함으로써 성 보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급진적인 광기가 시작됐다”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대변인의 언급을 옮겨 놓았다.

연합 감리교 목사 출신(세인트제임스연합감리교), 연합감리교는 침례교 다음으로 교세가 강하다.

요한 웨슬리에 의해 시작됨, 볼티모어, 애틀란타 등을 누비며 복음을 전했던 요한 웨슬리가 이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미국 하원, 그것도 수십 년 동안 목사를 했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이다. 이런 세상에 미국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 하원 국회 의장, 민주당 낸시 펠로시, 117차 회기 시작하며 국회에서 성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함

영어로 he, she 등은 안 됨. chairman, chair

가족 관계, 엄마, 아빠, 아들, 딸, 자내, 형제 등 안 됨, 부모, 아이들 등으로

자기의 사퇴 의사를 밝힌다. submit his or her resignation, resign

그녀가 그가 어떤 일로 섬긴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he serves, she serves, he holds, she holds, Member, delegate 등으로 바꾼다.

미국의 국회 의장이 이런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발표함. 일단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올해 나이가 만 80세, 볼티모어 출신, 23살에 남편과 결혼해서 5명의 아이들, 아마 여러 명의 손자 손녀들

과연 집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의 국회의장, 국회의원, 미국의 밥을 만드는 사람들

앞으로 견잡을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한국도 조만간 이런 일이 닥치겠구나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다.

이미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체제의 완성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여기에 이런 성적 지향 문제, 동성애 등이 겹치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이지만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존 맥아더 목사의 설교를 유튜브에 가서 찾았다.

그랬더니 2020년 11월 3일 선거 이후, 진실이 가려지고 나라가 어려워질 때인 12월 6일에 행한 설교가 됐다. 설교 제목은 “이 구부러지고 왜곡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How to Live in a Crooked and Perverse Generation)였다. 참으로 내가 고민하던 내용을 담고 있는 설교라 유심히 듣고 오늘은 이 설교를 모티브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달하려고 한다. 늘 이야기하듯이 완전한 목사는 없다. 맥아더도 대단히 좋은 분이지만 몇몇 점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관, 세상관, 하나님관, 인간관, 목회, 저술 등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어느 정도냐? 나는 그분의 새끼발가락만도 못하다.

(*) 맥아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게 나온다. 그런데 요즘 찾아보니 지난 2-3주 몸아 아파서 설교를 못한다고 한다. 아시는 것처럼 맥아더는 코로나 19 이유로 교회를 폐쇄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종교의 자유 확보를 위해 대면 예배를 강행하였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다. 나이를 보니 만 80세였다. 동일한 나이의 낸시 펠로시와 존 맥아더를 보면서 사람의 품위 차이를 보게 된다.

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맥아더 목사의 해박한 지식에 그냥 놀라고 말았다. “이렇게 설교하니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고 듣는구나. 30만 클릭, 말 그대로 미국의 대표적인 목사구나.” 속히 병에서 일어나 설교하기를 기도한다. 그런데 설교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10분, 나보다는 길어서 안심하였다. 빌립보서는 사도바울의 옥중 서신, 로마의 옥에 갇힌 지 약 4년 되는 시점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살던 세상: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민족(15)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성을 설명해야 오늘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도시, 이스탄불(비잔티움),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빌립보 행16, 바울은 유럽으로 가려하지 않았으나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손짓을 하며 오라고 해서 뜻을 바꾸고 빌립보로 들어가서 유럽 선교 여행 시작

빌립보: 그리스의 고대 도시, 본래 이 도시의 명칭은 크레니데스(Crenides).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이 근방에 막대한 매장량의 금광이 있음을 발견하고 금광 개발을 위해 이곳에 성읍을 세웠다. 그러나 BC 168년 이곳은 신흥 제국 로마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에그나티아 가도’(Via Egnatia)에 인접한 교통의 요지. B.C. 42년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암살자 부르투스와 카시우스의 군대를 성읍 근방에서 격파한 후 군인들을 이곳에 주둔시켰다. 이로써 로마 공화정이 막을 내리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 일이 발생함, 보통 필리피 전투(The Battle of Philippi)로 알려진 전투에서는 20만 명의 군인들이 싸우고 4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함. 로마 제국 내에서의 가장 큰 전투 중 하나. 그 뒤에 BC 31년 옥타비아누스가 군인들을 이곳에 정착시켰다. 그리하여 이곳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안식처였다. 이후 이곳 출신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고 로마 지방 총독의 간섭 없이 자치적으로 행정을 꾸려갈 수 있는 행정 특구의 혜택도 받았다.

군인들, 로마의 지배자들에게는 심히 좋은 도시였지만 거기 사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심히 어려움을 준 도시,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에 의해 착취를 당하고 가난하게 살았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살기가 심히 어려운 도시

기독교인들 우상 숭배 반대, 유일하신 하나님 믿음, 세상 문화 반대, 직업 선택 문제, 너무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고린도후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풍성한 헌금, 빌립보 교회를 말한다.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풍성한 헌금을 하게 하였다(고후8:1-2).

이런 가난 외에도 로마 사람들, 군인들, 외부의 상인들이 가져온 더럽고 추한 문화(우상 숭배, 동성애

등),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그들이 사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2:15,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이 사는 세상, 모든 것이 왜곡된 세상

즉 빌립보 교인들이 살던 세상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다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상이다.
물론 지금 우리는 말세를 당해서 그 정도가 더 심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

“옛글: 저는 카톨릭 국가에 있습니다. 동성애가 편만한 나라여서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할 정도로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이들의 문화는 음란 그 자체입니다. 머지않아 한국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어떻게든 깨어 기도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예수님이 살던 세상, 바울이 살던 세상, 아브라함이 살던 세상, 노아가 살던 세상, 롯이 살던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딸들에게는 살기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한 마디로 모든 것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상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미국 모두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상이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 함께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의로운 세상이 아니다. 정의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다.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
왜? 이 세상은 세상의 신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 겉으로 보기에 성공하는 곳
요8:44, 마귀는 죽이고 진리를 왜곡하고 구부러뜨리는 일에 능수능란하다.

바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살도록 정해져 있다.
히11:38

우리는 누구인가?(15)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요1:12

세상에는 마귀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고 거짓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낙태, 부정 선거, 사회주의/공산주의, 진화론, 하나님 부정, 신성모독
우리는 이들 가운데서 진리와 자유를 지키면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베드로의 표현(벧후1:4), 이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다. divine nature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난다. (15)

어둠에서 빛을 내는 발광체들이다.

우리가 꼭 인식해야 하는 것: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 빛을 내는 존재이다.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된다(롬12:2).

빛을 내야 한다. 마5:14, 16, 특별히 등대는 어디에 설치하는가? 가장 위험한 곳에 (*)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을 내는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한다(16).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빛을 낸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마귀의 어둠 권세는 미워하지만 그 어둠 가운데 갇혀 지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우리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지만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시할 뿐이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오라고,

젠더 이데올로기, LGBT, 트랜스젠더 등 동일한 메시지

죄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를 붕괴시키는 전 세계적인 부정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외칠 뿐이다.

웨슬리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였다. 그의 시대에 사람들이 듣고 돌아섰다.

요나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였다.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돌아섰다.

노아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였다. 그의 시대에 사람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예레미야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였다. 그의 시대에 사람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였다. 그의 시대에 사람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즉 우리가 할 일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 맡긴다.

세상은 악하니까 나는 조용히 있겠다. 바른 태도 아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성경 말씀, 성경에서 나온 바른 가치도 포함된다. 자유, 재산권, 자유 민주주의 가치, 올바른 역사관 세상관, 창조 신앙 등 모두 포함된다.

악법을 만들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포함된다.

좋은 책의 출간, 미디어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앱, 음악 등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최종적인 소망(16)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도 사람 편에서는 모두 실패로 보이는 때 있다.

예레미야 40년 대인, 모진 핍박,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 본인은 이집트

사도 바울 3-40년 죽을힘을 다해 복음 선포, 마지막 로마 감옥, 참수형

바울의 권면: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할 것이다(16).

여기가 최종 심판석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개별적으로 설 날이 있다.

바로 그날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면 행한 모든 이에 대한 보상이 있고 그 날 우리는 기뻐할 것이다(고전3:12-13).

이게 사실이다. 참으로 그렇다(17). 그래서 나는 내가 희생물이 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지금 바울이 기뻐할 때인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최악의 가난을 당하며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상에 사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신에 찬 기쁨의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고 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빛을 내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였다.

심지어 내가 희생 헌물이 되어 기뻐하고 기뻐한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좌석 수가 5000개 이상 대형 교회

수도권 밖은 2단계, 그러면 당연히 2단계 규정, 20%는 모여도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방송 요원 20명만 모이고 모이지 말라.

안 된다, 예배 탄압이다. 모두가 조용할 때 우리가 희생제물이 되더라도 예배 회복을 위해 불법을 행하는 정부에 항의한다. 교회가 폐쇄되면 법에 호소해서라도 종교의 자유, 예배 권리 지키겠다.

참으로 큰 용기, 우리 같은 교회는 할 수 없는 일, 이런 희생이 결국 교회와 국가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빛을 보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날에 함께 기뻐할 것이다.

나와 우리 교회는 아이들과 함께 이런 믿음의 희생을 하며 앞날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한다.

바울의 최종 권면(18).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리고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자(14).

사람은 보지 못하나 하나님은 보신다. 이 구부러지고 패역한 시대를 살며 하나님의 아들로써 빛을 내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보상을 바라면서 살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